인문연구 제95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1. Vol. 95, No. 1, pp.169~196
http://dx.doi.org/10.21211/JHUM.95.6

롤즈 정의관의 이론적 전개과정과 연속성*

- '칸트적' 구성에서 '정치적' 구성으로 -

인지훈**

〈차 례〉

1. 들어가며
2. 구성주의의 기본개념
3. 칸트적 구성주의
4. 정치적 구성주의
5. 나가며: 정치적 구성주의와 정당화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롤즈의 정치철학 내에 존재하는 내적 긴장이 구성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전까지 많은 비판가들은 롤즈의 정의론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발상들, 즉 내용들에 주목한 반면 방법론적 형식에 대한 관

*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2021) 중 1장 "정치적 구성주의의 의미"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세심하고 구체적인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비록 일일이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충·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연구원)

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이는 『정의론』과 이후 저술들 사이에 긴장과 모순이 존재한다는 '오해'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치적 정당화라는 목적에 주목할 때, 롤즈의 정의관은 '칸트적 구성주의'에서 '정치적 구성주의'로 점차 강조점이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종합될 수 있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정치적 관점은 이전 입장과의 근본적인 단절이 아닌 연속된 발전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롤즈의 정치적 구성주의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정치권력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이론적·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 롤즈,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 칸트적 구성주의, 정치적 구성주의, 정당화

1. 들어가며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 롤즈(Rawls)가 남긴 학문적 유산은 정의의 문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대한 관심과 논쟁으로 확장되어 왔다. 그렇지만 정작 롤즈의 사상 자체를 모순없이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특히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TJ)』에 이어 등장한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 PL)』는 롤즈의 입장을 종합하는데 있어 여러 어려움을 발생시켰고, 많은 학자들이 롤즈의 사상 내에 긴장과 균열(Barry 1995), 더 나아가 내적 모순이 존재한다고 비판하기 시작하였다(Okin 1993; Ackerman 1994).[1] 그 동안 몇몇 학자들이 롤즈의 저술들 속에서 발견되는

1) 이후 롤즈 삼부작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만민법(*The Law of Peoples*; LP)』에 대해서는 이러한 종류의 비판이 한결 거세졌다. 대표적으로는

중요한 발상들을 근거로 사상적 일관성을 밝히려고 시도해 왔지만,[2] 내용이 아닌 방법에 주목하여 롤즈를 재해석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롤즈가 이론적 전개과정에 있어 철학적 방법론이 지니는 중요성은 지나치게 간과되어 왔으며, 특히 정치적 구성주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롤즈에 대한 오해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이에 이 논문은 초기 롤즈의 '칸트적 구성주의'와 '정치적 구성주의' 사이에는 내용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구성적 방법'이라는 명백한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즉, 롤즈의 사상 체계 전반에 걸친 일관성은 내용이 아니라 방법에 주목할 때 분명해진다. 더 나아가 롤즈의 이론적 전개를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TJ에서 PL로 이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에 다가설 수 있다. 그것은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치 권력의 행사[3]가 정당화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본 논문은 우선 정치철학에서 사용되는 구성주의적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반적 특징들을 정리한 뒤, 롤즈가 '칸트적 구성주의'에서 '정치적 구성주의'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특징들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러한 롤즈의 방법을 정치적 정당화(justification)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때, 롤즈의 사상 체계가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좀 더 정확히 부각된다는 점을 덧붙이도록 한다.

Tan(1998), Buchanan(2000), Pogge(2001) 참조.

2) 대표적으로는 Freeman(2007)과 Nussbaum(2015) 참조.

3) 본래 단순히 '정치권력'이라고 서술되어 있던 이 부분은 "롤즈의 관심이 '정치권력 자체'가 아니라 정치권력이 활동하는 원칙에 대한 정당화에 있다"고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덕분에 수정되었다.

2. 구성주의의 기본개념

정치철학에서 구성주의라는 표현은 규범적 정치이론에 대한 롤즈의 접근법을 묘사하기 위하여 1950년대 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좀 더 넓게는 규범 윤리학과 메타윤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군의 유사한 관점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발전해 왔다.[4] 하지만 구성주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와 더불어, 정치철학과 도덕이론에서 '구성주의(constructivism)'라는 용어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구성주의의 경우에는 롤즈 본인조차도 '구성'의 발상을 다소 다른 강조점을 사용하면서 시기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보다 큰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된다.

비록 개념 자체가 논쟁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구성주의의 입장들이 지닌 몇 가지 공통점들을 나열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의(definition)에 접근해 볼 수 있다. 가장 포괄적인 – 혹은 최소주의적인 – 의미에서 구성주의는 "어떤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들(complex entities)이 좀 더 근본적인 요소들(fundamental elements)

4) 철학 내에서 구성주의가 위치하고 있는 지위에 대한 롤즈의 발상은 "Outlines of a Decision Procedure for Ethics(1951)"부터 "The Independence of Moral Theory(1975)"에 걸쳐 있는 여러 논문들을 통해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도덕 이론이 왜, 그리고 어떻게 독립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롤즈 철학에서 구성주의가 지닌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심사위원의 지적이 있었다. 롤즈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직관주의, 공리주의, 완전주의와 같은 전통적 도덕관들의 한계라는 배경을 지닌다.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칸트적 구성과 정치적 구성 간의 차이와 연속성을 밝히려는 본 논문의 목적을 다소 넘어서지 않나 싶다. 다만 롤즈에 대한 연구들 속에서 이와 같은 구성적 발상의 원천이나 그 타당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보충할 것을 약속드린다.

로부터 구성(construct)된다(Buckley 2015)"[5]는 생각에 기초한 일군의 철학적 입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치철학과 윤리학 분야에서 구성주의는 정치적·도덕적 원칙 혹은 의무와 같은 까다롭고 복잡한 대상이 특정한 근본적 요소들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러한 윤리적 사고는 구성이 이루어지는 (가상의) 시공간적인 과정 혹은 절차(process)를 필요로 한다. 구성주의 진영 내부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논쟁들은 이때의 대상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이거나 충분한 근본적인 요소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론의 목적에 비추어봤을 때 사용된 구성절차가 적절한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Buckley 2019).

구성주의자들을 하나로 묶는 또 다른 공통점은 도덕 행위자에 대한 관점과 관련된다. 이들은 '윤리적 질서가 도덕 행위자로부터 독립된 채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공유한다. 즉, 올바름의 기준은 행위자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위자들의 특징에 달려 있다. 특히 합리적 직관주의와는 대조적으로 독립적인 가치질서란 스스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인간) 이성 자체의 현실적 혹은 이상적인 활동에 의해 구성된다(PL 99)[6]. 따라서 '구성'은 이론이성이 아니라 실천이성에 관여한다. 실천이성은 대상들에 대한 관점 — 가령, 정치적인 열망의 목표로 간주되는 정의로운 입헌정체관 — 에 따라서 이러한 대상들을 산출해내는 것(the production of objects according to a conception of those objects)과 관련된다. 반면, 이론이성은

---

5) 비슷한 표현으로는 O'Neill(2003, 347)의 정의가 있다. 그녀에 따르면, 구성주의는 "어떤 것들(entities)이 다른 좀 더 기본적인 것들에 의해 구성되는 복합체(complex)"라는 발상을 공유하는 철학적, 윤리적 입장이다.

6) 롤즈는 이러한 '구성적 자율성(constitutive autonomy)'을 칸트의 구성주의가 지닌 특징으로 이해한다. 비록 정치적 구성주의는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와 구분되지만 이곳에서는 구성주의 일반에 대한 이해에 주목하기 위하여 이러한 차이들은 잠시 미뤄두기로 한다.

주어진 대상에 대한 지식(the knowledge of given objects)과 관련이 있다(PL 93).[7]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이론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구성주의는 특정한 윤리적 관점에 대한 정당화를 목적으로 삼는다. 롤즈의 사례를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 정치적 정의의 문제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적인 근거를 밝히려는(PL 100)"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구성주의의 의미는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와 구분된다. 윤리학에서 사회적 구성주의란 '이 세상에 고유한 윤리적 특성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실재하지 않으며, 현실 속의 윤리적 요구들은 윤리적 세계 외부의 다른 고려들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는 철학적 입장을 뜻한다. 즉, 윤리적인 것은 사회적 규범이나 태도와 같은 맥락으로부터 인공적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사회적 혹은 윤리적 실재(reality)란 특정 사회 안에 존재하는 구성원들의 결합된 이해(jointed understanding)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은 주로 우리가 실재에 대한 의미와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게 되는지 설명하는 동시에, 기존의 믿음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제공하려는 이론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8] 하지만, 구성주의가 칸트에게서 영감을 얻은 롤즈의 독특한 방법론을 지칭할 때는, 윤리적인 것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윤리적 원칙과 이에 대한 관점 자체를

---

7) 구성주의의 이러한 존재론적·인식론적 특징은 롤즈가 이후 정치적 자유주의의 핵심 발상으로써 중첩적 합의에 의한 정치적 정당화를 고안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전제가 된다. 아울러 이것은 LP가 왜 '지구적 정의론(Beitz 1979; Pogge 1989; Caney 2006; Tan 2004)'의 형태를 띠지 않는지에 대한 중요한 방법론적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8)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에 대한 기본적인 개론으로는 Burr (2015, 1-30), 더 나아가 이러한 관점의 대표적 논문들의 모음으로는 Gergen and Gergen(2003) 참고.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를 의미하게 된다(O'Neill 1998).

우리는 반실재론의 전통 속에서 구성주의의 독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부각시켜 볼 수 있다.[9] 비록 롤즈가 도덕적 회의론과 다원주의적 비판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반실재론에서 발견 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지만(Kaufman 2012, 227), 구성주의와 반실재론이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즉, 행위자로부터 독립된 윤리적 기준의 원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구성주의는 반실재론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원칙이나 요구들이 '인간 행위자들[10]의 구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다음 두 가지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때문이다. 첫째, 구성주의는 구성적 윤리 추론이 '실천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것은 관련된 행위자들의 이성적 활동이 대상을 생산하는데 있어 필수적일 뿐 아니라, 이러한 활동이 행위자들의 실질적인 행동을 안내할 실천적 도덕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긴다. 둘째, 구성주의자들은 더 나아가서 그러한 도덕률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구성주의에 따르면, 정당화는 특정한 도덕적 진술이나 원칙들이 객관적일 수 있어야 가능하다(PL Lect. Ⅲ, §5). 따라서, 구성주의는 반실재론의 많은 관점들과는 달리 윤리학에서의 객관성을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가정한다. 윤리적 구성주의는 정당화의 기획을 온전히 포기하는 비실재론의 입장(예를 들어, 정의주의 emotivism)에 반대하는 동시에, 정당화의 개념에 지나친 제약을 가함으로써 정당화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입장들(예를 들어, 상대주의, 공동체주의 등)에도 반대한다. O'Neill(2003, 348)의 말대로, 이는 매우 야

9) Wenar(1995) 역시 비슷한 대비를 통해 설명한다. 그는 구성주의가 비정초주의(nonfoundationalism)에 속하지만 반정초주의(anti-foundationalism)일 필요는 없음을 강조한다.

10) 정치적 구성주의의 맥락에 따르면 이때의 행위자들은 '시민들'로 표현될 수 있다.

심찬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구성주의적 접근법은 비록 우리가 실재론이 전제하는 것과 같은 기초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행동을 안내할 윤리적 도덕률의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학과 도덕철학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구성주의란 특정한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복잡한 실체를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폭넓게 정의내릴 수 있다. 추가로 이때의 실체가 윤리적 행위자보다 선행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에 대한 정당화가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구성주의가 지닌 특징으로 덧붙일 수 있다. 만약 구성주의의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이라면 윤리적 행위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실천적 도덕률을 얻게 될 것이다.

3. 칸트적 구성주의

롤즈의 구성주의적 방법론에서 '칸트적 구성'의 지위는 논쟁적이다. 롤즈의 사회계약에 대한 발상 전반에 걸쳐 칸트로부터의 영향력은 분명하지만, "도덕철학에서의 칸트적 구성주의(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Philosophy; KC)"에서 다소 장황하게 다룬 '구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설명은 얼핏 보아 이후 PL을 통해 발전되는 정치적 관점과 잘 조화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간단한 해결책 중 하나는 KC를 롤즈의 '일시적인 일탈'로 보는 것이다. 이럴 경우 KC는 TJ의 중요한 이론적 전제였던 인간에 대한 칸트적 관념, 즉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이상(an ideal of personal autonomy)을[11] 구성의 발상 속에 형이상학적으로 발전시

11) 칸트적 의미에서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것은 개인적(personal) 자율성이라기 보다는 도덕적(moral) 자율성을 의미한다. 이곳에서는 일단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킨 성과물이지만, PL에 이르러 더 이상 칸트적 인간에 대한 도덕적 관점이 시민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철회된 입장이 된다. 이런 방식의 이해는 사회 정의에 대한 일반 이론으로서 TJ는 'KC와는 무관하게' 정치적 관점인 PL로 수정되었다고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되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KC가 비록 포괄적 교리와 정치적 교리를 구분하지 않은 모호함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PL xv), 정치적 구성주의 더 나아가 정치적 자유주의를 이해하는데 있어 KC가 지닌 중요성이 이로 인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도덕철학에서 발생하는 정당화의 문제에 대한 칸트적 접근법을 뚜렷하게 발전시킨 칸트적 구성주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도 (공적) 정당화를 위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12] 다만 후자는 정치적 관점을 그 내용으로 뚜렷하게 부각시켰다는 차이만을 지닌다. 실질적 주장의 측면에서 정치적 구성주의가 롤즈의 최종적인 설명이든 아니든지 간에, 정당화의 문제에 대한 PL의 핵심 발상은 칸트적 구성주의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흔히 "정치적 전환(Weithman 2011)"이라고 불리는 것은 칸트적 구성에 대한 수정이라기보다는 재진술에 가깝다. 이번과 다음 절에 걸쳐 '칸트적 구성주의'와 '정치적 구성주의' 사이에 근본적인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롤즈가 제시한 구성주의의 칸트적 형태란 "특정한 인간의 관념을 하나의 요소(element)로서 합당한 구성 절차 속에 명시하고(specify), 그 절차의 결과가 정의의 제1원칙이 지닌 내용을 결정(KC 304)"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

12) 롤즈의 칸트적 구성주의는 이후 도덕철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두드러진 사례로는 Korsgaard(1996), Scanlon(1998), Hill(2002), James(2007)이 있다.

면, 어떤 합당한 요구들에 답할 수 있도록 구성의 절차를 세운 다음, 합리적인 행위자로 특징지어진 인간들이 이러한 절차 안에서 도달하는 합의를 통해 정의의 제1원칙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Ibid). 따라서, 롤즈에게 정의관을 확정하는 일은 곧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과 같다. 첫째, 시민들은 자신이 어떠한 특징을 지닌 인간으로 이해되기를 원하는가? 둘째, 그들은 이와 같이 이해된 인간들이 일생을 보내는 사회가 어떠한 일반적 특징을 지녔다고 해석할 것인가? 롤즈에 따르면, 지난 두어 세기에 걸쳐 진행된 민주적 사고의 발전에 비춰볼 때,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존재로 여겨지길 바랄 것이며, 이러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회를 공정한 협동의 체제라고 해석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의 문제는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간들이 오로지 그러한 존재로만 대표될 경우[13]에 합의하게 될 원칙들은 무엇인가(KC 305)'를 따져봄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롤즈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설적 상황을 제시하는데, 이와 같은 장치를 통하여 우리는 특정한 인간관과 사회관이라는 구성의 근본적인 요소들을[14]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정의의 원칙과 연결시키게 된다. 이처럼 '구성'이란 특정한 조건 속에서 정의의 원칙이 결정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절차 자체를 당면한 목적에 따라 적절한 요소들을 통해 조형(model)하는 것을 의미한다.

---

13) 그런 까닭에 롤즈는 원초적 입장이 '대표의 모델(model of representation [LP §3.1])'이라고 거듭 강조했던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롤즈의 representation은 '표현'이나 '묘사'가 본래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낸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미 한국학계에서 '대표'가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시민들)의 '대표들(representatives)'이 원초적 입장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으므로 이대로 사용한다.

14) 칸트적 구성주의에서 관건은 구성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지닌 본질적 특징에 대한 해명에 있다.

칸트적 구성주의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은 이를 칸트 본인의 발상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칸트의 지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구성하는데 있어 롤즈와 칸트는 중요한 차이를 보여준다. 사회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롤즈는 자신의 이론이 칸트의(Kant's) 구성주의가 아닌 칸트적(Kantian) 구성주의임을 강조한다(KC 339). 롤즈의 사상체계를 다룰 때 우리의 관심은 후자에 있으며, 롤즈가 칸트를 올바르게 해석했는지의 문제는 간접적으로만 문제시된다.[15] 롤즈와 칸트의 차이는 공간적 비유를 사용하자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있다. 칸트는 특정한, 심지어 개인적인 일상적 삶의 사례들로부터 나아간다. 그는 올바르게만 수행된다면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 사회 정의의 원칙들을 포함하는 정합적이고 충분히 완전한 원칙들의 체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가정한다. 롤즈의 구성은 이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다. 즉, 이것은 사회의 기본구조를 규율하는 만장일치의 집합적 동의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모든 개인들과 결사체들의 결정들은 이러한 사전 작업에 일관되도록 이루어진다. 롤즈는 이를 "사회적인 것의 우선성(Ibid.)"이라 표현한다.

롤즈가 보기에, 칸트는 도덕성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충분한 관점을 발전시키지 않았다. 롤즈의 설명 속에서 이것은 '공지성(publicity)'의 조건[16]과 관련된다. 이는 계약론적 입장에서 자

15) 롤즈가 굳이 '칸트적(Kantian)'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해석의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다음 주장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O'Neill(2003)과 Krasnoff(1999)는 Rawls가 Kant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간혹 왜곡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Kaufman(2012)에 따르면, 롤즈의 사회계약은 Kant의 직관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롤즈와 칸트 간의 차이는 칸트의 사고를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서 발생하는 오해라고 주장한다.

16) TJ에서는 이를 정당성 개념의 다섯 가지 형식적 제한 조건들 중 하나로 제시한다. 나머지는 '일반성', '보편성', '원칙들 간 서열의 기준', '최종성'

연스럽게 얻어지는데, 정의의 원칙들이 합의의 결과인 경우,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원칙들에 관하여 자신들이 알아야 할 모든 사항들을 다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그들에겐 무엇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려져야만 한다. 당사자들은 "공적으로 인정되고 충분히 유효한 사회생활의 도덕적 헌장(TJ 115)"의 원칙들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둘째, 시민들은 일단 합의의 결과에 도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원칙에 따르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TJ 15). 롤즈에 따르면, 칸트는 공지성을 자신의 도덕법의 개념 속에 내포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도를 사회 정의에 대한 관점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TJ 115n8).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사회에서는 제1원칙들이 정치, 사회제도들과 공적 전통 속에 구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 자유, 기회의 파생이 공적으로 끊임없이 느껴지고 교육됨으로써 특정한 종류의 인간관을 북돋게 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얻게 된다. 만약 완전한 공지성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회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칸트적' 구성주의 안에서 완전한 공지성의 조건은 자율성의 개념이 이해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한다. 칸트가 종종 공지성의 요구조건에 대해 언급하지만, 그는 완전히 자율적인 우리 자신에 대한 관념이 이성의 사실(Fact of Reason)에 의해 이미 주어진 것으로 여긴다. 즉, 도덕율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자율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 자신에 대한 관념은 개인의 도덕의식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반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배경적 사회 조건들은 강조되지도, 도덕 교리 그

이 있다(TJ § 23).

자체 안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롤즈가 사회적인 것을 우선시함으로써 칸트로부터 벗어난다는 점은 공지성의 조건을 통해 명백해진다(KC 339-40).

우리는 롤즈의 강조점이 '합리적인 것(the rational)'에서 '합당한 것(the reasonable)'으로[17] 옮겨갔으며, 따라서 정의의 문제에 관여하는 도덕적 행위자가 형이상학적 인간에서 점차 사회적(혹은 정치적) 인간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합리적인 것은 개인이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채택하고 이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매기며, 이것들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을[18] 선택할 때 적용된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 표현하자면 합리성이란 "누구나 적은 것보다는 보다 많은 선을 택하게 되리라는(TJ 123)" 가정을 의미한다. 도덕 행위자들의 이러한 특징은 원초적 입장에 놓인 당사자들의 추론에 가장 뚜렷이 반영된다. 반면 합당성은 공적 세계 자체의 가능성에 적용된다. 즉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공정한 협동의 조건으로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기꺼이 준수할 태도가 되어 있을 때(PL 49)" 그 사람은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합당한 것에 대한 강조는 분명 후기의 저술들에서 분명해진다. 따라서,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롤즈의 '정치적 전환'을 해명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일단 롤즈 본인이 여러 곳에서 '합리적인 것'과 '합당한 것'은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였다(PL 52 ; JF 6). 구성 절차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내는 롤즈의 논리 속에는 합당한 것에 대한 강조가 이미 뚜렷하게 드러난다. 강조점의 이동

---

17) 롤즈는 이 둘을 각각 합리성(rationality) 그리고 합당성(reasonableness)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본 글에서도 '합리적인 것/합당한 것'을 '합리성/합당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18) 이는 "목적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채택하거나, 또는 사항이 같다면 보다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선택하는 원칙(PL 50)"으로도 알려져 있다.

은 많은 이들이 오해하듯이 이론의 실질적인 주장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롤즈의 TJ에 대한 많은 오해가 그로 하여금 다른 방식의 설명을 시도하도록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TJ의 핵심 주장을 '계약 당사자들의 합리성만으로 정의의 원칙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 의미든지 간에, 기껏해야 절반의 이해에 그친다. 따라서 KC에서 두드러지는 롤즈의 이성에 대한 특별한 이원론적[19] 접근 방식은 그의 사상체계 전체의 일관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배제되어야 할 요소가 아니다. '칸트적 구성주의'를 통해 우리는 롤즈 이론 내에서 발견되는 차이보다는 연속성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롤즈의 구성적 발상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칸트적 구성주의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추가적인 이유를 짧게 덧붙이도록 한다. 칸트적 구성주의는 구성의 근본적 요소인 특정한 인간관이 일정한 연속성을 지니고서 정치적 자유주의의 토대가 되는 방식[20]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롤즈에 따르면, 모든 시민들이 칸트적 인간으로 정형화된 이해관계와 삶의 목적을 공유하지는 않을지라도 합당성이 요구하는 상호성의 원리가 시민들 간의 중첩적 합의를 가능케 한다. 계약의 당사자들 간에 '좋은 것'에 대한 입장은 서로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옳은 것'에 대한 공통된 감각, 즉 합당한 시민이라면 지니

19) 이것은 단지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철학적 전통에서의 이성관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은 아니다. 롤즈는 자신의 이론을 인간본성(human nature)에 대한 설명에 기초하지 않는다.

20) 이와 관련하여 김비환(1996)과 정원규(2009)는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형이상학적 인간관의 토대를 지닌다고 비판하였다. 물론 칸트적(그리고 정치적) 구성주의는 특정한 인간관과 사회관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때 어떤 인간관과 사회관이 필요한지의 문제는 선험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롤즈의 구성주의는 일반적, 형식적 수준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특정한, 구체적인 도덕적 토대를 옹호하거나 전제하는 것과는 구분된다.

고 있는 정의감을 통해 우리는 최소한의 합당한 정의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합리성과 합당성의 이원론적 이성관과 상호 보완성에 대한 강조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포함한 롤즈 사상 전반에 걸쳐 변함없는 핵심으로 유지된다.

칸트적 관념 속에서 인간은 합리적인 동시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고, 그러므로 그렇게 이해되는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협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간주된다(KC 306). 이러한 인간관은 종교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기초를 지니지 않는다. 이것은 민주사회의 공적 문화 속에서 은연중에 승인되거나, 일단 적절하게 제시되고 설명된다면 시민들에게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관념들이다. 시민들이 공적으로 공유하는 개념들(ideas)로부터 인간관을 표현해야하는 이유는 구성의 당면한 목적 때문이며, 롤즈는 이를 정치철학의 "참된 과업(real task, Ibid.)"이라 표현한다.

> 정치철학의 역할은 상식 속에 뿌리박혀 있으리라 희망하는 합의의 더 깊은 기초들을 발견하고 정식화하거나, 심지어 역사적 전통 속에서 발견되는 신념들을 광범위한 사람들의 숙고된 신념들에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형태로 표현하여, 공통된 이해를 위한 시작점을 고안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다(Ibid.).

정리하자면, 롤즈가 칸트로 부터 영감을 얻어 KC를 통해 구체화시킨 도덕적 행위자에 대한 관점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은 합리성과 합당성의 구분에 있다. 합당성은 원초적 입장을 통해 표현되는 구체적인 제한들로 표현되며,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정의의 두 원칙들로 이어진다. "이 원칙들은 질서정연한 사회의 기본구조를 위한 합당성의 내용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의해 구성된다(KC 317)". 더 나아가, 합리성과 합당성으로 규정된 인간(혹은 시민)에 대한 관점은 TJ와 KC 뿐만

아니라, PL과 LP까지 롤즈 사상 전체에서 핵심적인 요소의 지위를 지닌다.

4. '정치적' 구성주의

'정치적' 구성주의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설명한 구성주의적 접근 방식을 정치적 영역(political domain)에 적용한 것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특정한 정의관(공정으로서의 정의)을 정당화하기 위해 구성적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때의 정의관이 정치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이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역시 정치적인 것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즉, 롤즈의 구성주의가 '정치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적이 '정치적' 정의관을 제시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파생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치적' 구성주의는 정의의 문제와 관련된 개념들을 사용해 대표되는(represent) 구성절차를 통해 정의의 원칙에 도달하고 이를 옹호하며, 더 나아가 개별적인 행위와 제도에 정당성(legitimacy)을 부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Robert 2007).

정치적 구성주의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와의 비교에서 출발해 보도록 한다. 롤즈는 칸트의 입장을 포괄적(comprehensive) 자유주의라 칭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자유주의와 대비시킨다. 칸트는 모든 도덕적 인간이 지닌 자율성에 대한 이상에 기초하여 보편적인 도덕률까지 나아간다. 그럼으로써 자율성의 이상이 인생 전반을 빠짐없이 규제하게 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다(PL 205). 이 경우 사회의 기본구조는 도덕철학의 다른 여러 주제들 중 하나로 다루어진다(JF 14). 롤즈에 따르면, 칸트의 자율성이 지닌 의미는 도덕적·정치적 가치들의 질서가 실천이성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구

성(constitute)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직관주의(혹은 실재론)와 대조적으로 구성적(constitutive) 자율성은 독립적인 가치질서가 스스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인간) 이성 자체의 현실적 혹은 이상적 활동에 의해 구성된다(PL 206).[21] TJ에서 합리적 직관주의를 비판하며 구성적 기준으로 정의의 원칙들을 도출해내는 과정까지만 하더라도 롤즈와 칸트의 견해는 크게 다를 것은 없어 보인다. 게다가 TJ의 마지막 부분(9장)에서 정의(옳음)와 선(좋음)이 정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롤즈는 전적으로 칸트적 의미에서의 "도덕적 인격의 자율성(TJ §78)"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정치적 관점에서의 자율성을 제시한다. 이때의 질문은 어떤 경우에 특정한 정치적 견해가 자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떻게 우리는 정치적 관점에서 자율적인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있는가?[22] 롤즈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정치적 견해를 단순히 외부에서 강요된 도덕적 요구들로서 제시하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정치적 시민관, 그리고 공정한 협동체계로서의 정치적 사회관들과 결합된 실천이성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다른 시민에게 제시할 때, 시민인 우리는

---

21) 영어의 constructive와 constitutive 모두 '구성적'이라는 단어보다 더 적절한 번역을 찾기는 힘들다.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가급적 영문을 병기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은 참고가 될 것이다. 칸트적 구성주의(Kantian constructivism)는 칸트의 도덕적 의무와 실천이성에 대한 롤즈의 해석을 지칭하거나,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칸트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는 O'Neill(1988; 2015) 등의 견해를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반면, '구성적 방법(constitutive method)'은 좁게는 롤즈의 설명 속에서 정치적 구성과 대비되는 칸트의 도덕적 구성을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넓게는 Korsgaard (1996) 등에 의해 발전된 '절차적 실재론'과 같은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한 종류를 지칭한다.

22) 롤즈가 반복해서 강조하듯이 그의 견해는 정치적 관점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비도덕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롤즈가 볼 때 정치와 도덕을 일종의 교환관계(trade-off)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스스로 자율적[23]이다(PL 98). 반면에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 교리, 좋은 삶과 인간에 대한 도덕적 신조들의 도덕적 요청에 의해 정치적 견해를 제시한다면, 시민인 우리는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타율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설명은 PL에 이르러 롤즈의 사상이 칸트의(Kant’s) 도덕적 구성주의와 좀 더 뚜렷하게 구분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정치적 자유주의가 답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었다 : “합당하지만 양립 불가능한 종교적, 철학적 및 도덕적 교리들로 심원하게 나누어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상호간에 안정된 정의로운 사회를 상당기간 동안 지속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PL xviii)”.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은 정당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원칙의 제약을 받는다. 즉, 민주사회에서 정치권력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집합체에 의해 행사되는 강제력이기 때문에, … 모든 시민들이 그들의 공통적인 인간이성의 관점에서 승인할 것이라고 합당하게 예상될 수 있는 방식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PL 139-140)”. 반면에 포괄적 교리들은 제아무리 좋은 이상을 담고 있는 신념체계라고 하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고수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억압적 사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JF 34).

> 만약 정치사회가 하나의 동일한 포괄적 교리를 승인함으로써 통일되어 있을 때 그것을 공동체라고 말한다면, 국가권력의 억압적 사용과 그것에 수반되는 악은 정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것을 억압의 사실(fact of oppression)이라고 부르자. … 우리는 그 어떤 포괄적인 철학적-도덕적 신념 체계도, 심지어 세속적인 신념 체계들도 마찬가지라고 가정한다. 공리주의의 한 형태나 칸트 혹은 밀의

23) 롤즈는 이를 교리적(doctrinal) 자율성이라고 부르면서, 칸트의 구성적(constitutive) 자율성과 대비시킨다.

> 도덕적 견해로 통일되어 있는 사회도 또한 통일된 상태로 남아 있기 위해 국가권력의 억압적 제재를 필요로 할 것이다(Ibid.).

따라서, 정치적 자유주의의 목적은 시민들이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당화의 합당한 공적 기초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들(PL xix)"을 찾아내는 일이 된다.

이처럼 정치적 구성주의의 목적은 철저히 정치적인 영역에 제한되는 반면,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는 훨씬 방대하고 복잡한 목적을 지닌다. 문제는 초월적 관념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칸트의 인간관과 사회관이 자유주의가 찾고자하는 공적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정당화는 타인들에게 제시되는 것이므로, 그것은 '공통적일 수 있는 것'과 '공통적으로 주장되는 것'으로부터 생겨나야 하기 때문이다. 롤즈는 공적인 정치문화에 내재해 있는 공유된 근본적인 개념들로부터 출발한다. 그것은 '공정한 협동의 체제로서의 사회',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시민들' 뿐만 아니라, '질서정연한 사회', '사회의 기본구조', '원초적 입장', '공적 정당화' 등의 개념들을 포함한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공적인 정치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로 포괄적 교리들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정치적 가치들이다. 따라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칸트와는 달리 시민들이 정치적 관점에서 자율적일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

PL에서 롤즈는 자신의 구성주의가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24]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이것은 인간 삶의 모든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다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들을 주제로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롤즈

---

24) 다음은 '정치적 정의관'이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지에 대한 롤즈의 설명(PL Lect. Ⅱ, §2)을 활용한 것이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핵심은 정치적 구성주의를 통한 정치적 정의관의 정당화이다. 앞의 문장에서 정치적 자유주의, 정치적 구성주의, 정치적 정의관의 관념(idea)들을 공통적으로 한정(수식)하고 있는 '정치적(political)'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동일한 것이다.

가 사회의 “기본구조(basic structure)”라고 부르는 것에 적용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사회의 주요한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제도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롤즈의 기본구조는 “주요 제도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함께 맞물린 체 배열(PL 11)”되는 방식 혹은 상태를 의미한다. 하나의 체계로 결합된 ‘특정한’ 기본구조는 사회적 협동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혜택을 시민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배분하게 된다(PL 258). TJ에서 사회적 정의의 원칙들과 마찬가지로 PL에서 정치적 정의관(a 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의 으뜸가는 주제는 바로 이 기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많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25] 교리들과 비교할 때 뚜렷하게 드러난다. 대표적인 도덕적 교리 중 하나인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칙이 개인행위와 인간관계에서 부터 사회전체의 조직뿐만 아니라 만민법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주제에 적용하고자 한다. 반면, 정치적 정의관은 기본적 구조에만 작용되는 합당한 관점만을 추구하며, 그 이상의 보다 광범위한 공약은 각자의 포괄적 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남겨둔다(PL 12-13). 이러한 정의관을 도출하는 과정 전체에 걸쳐 오로지 정치적 가치들이 관여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정의관의 구성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직전의 설명에서 암시되듯이 주제를 사회의 기본구조에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이라는 말의 다음에 이어질 두 번째 의미, 즉 표현의 방식(the mode of presentation)에 독특한 특징을 부여할 수 있게 해준다.

정치적 구성주의가 지닌 두 번째 특징은 정치적 정의관이 ‘독립된

25) 롤즈에 따르면, 어떤 도덕관이, 그것이 광범위한 주제에 적용되고 그리고 모든 주제에 보편적으로(universally) 적용되는 것이 그 한계라면, “일반적(general)”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도덕관이, 인간생활에 있어 무엇이 가치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 인격의 이상들, 또한 우정과 가족 및 협회의 관계들에 대한 이상들, 그 밖에도 우리의 행동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그 한계가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칠 때,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포괄적(fully comprehensive)”이라고 할 수 있다(PL 13).

입장(a freestanding view)'으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정치적 정의관은 포괄적 교리의 일종으로 제시되는 것도, 포괄적 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롤즈는 "정치관이 어떻게 제시되느냐는 것과 이 정치관이 포괄적 교리의 일부분이거나, 또는 포괄적 교리 내에서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구별(PL 12)"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롤즈는 "모든 시민들이 각자 그들이 수용하는 정치적 정의관과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결되어 있는 포괄적 교리를 지니고 있다(ibid.)"고 가정한다. 하지만, 어떤 포괄적 교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정치적 정의관에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치적 정의관은 "언급하거나, 알거나, 위험하게 추측을 하지 않으면서(PL 12- 13)" 제시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정치적 정의관은 독립된 입장으로 제시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구성주의는 정치적 정의관의 내용을 '민주사회의 공적 정치문화에 내재된 근본적 개념들'을 활용하여 표현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롤즈는 이러한 개념들의 기원이 공적 정치문화에 있기 때문에 정의관의 내용이 정치적일 수 있다는 점을 포괄적 교리들이 속한 시민사회의 '배경문화'와의 대비 속에서 보여준다. 이 때 시민들의 배경문화란 교회와 대학, 학문·과학 사회, 클럽과 팀들과 같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협회(associations)에 담긴 문화이다. 이것은 사회적이긴 하나, 정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반면 민주적 사회에는 민주적 사상의 전통이 존재하는데, 이것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은 시민들은 상식에 의해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다(PL 13-14). 롤즈는 민주적 정치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대표적인 근본적 개념들로 '공정한 협동의 체계로서의 사회의 개념'과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으로서의 시민에 대한 개념' 등[26]을 제시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암묵적으로

26) 이외에도 '질서정연한 사회의 개념', '중첩적 합의의 개념', 기본구조의 개념', '원초적 입장의 개념'들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일관성 있고 명료하게 제시할 목적으로 도입된다. 하지만 '공정한 협동의 체계로서의 사

공유되는 생각들과 원칙들의 축적인데, 사회의 주요 제도들, 그리고 이들이 용인하는 해석으로 구체화되어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된다.

앞서 설명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상(entities)이 좀 더 근본적인 요소들(elements)에 의해 구성된다'는 구성주의의 기본 발상을 기억해보자. 롤즈의 구성주의는 특정한 정치문화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근본적인 요소들에서 출발한다. 이 공적문화는 입헌정체의 정치제도는 물론 이들에 대한 해석의 전통뿐만 아니라 관련된 역사적 서적과 문서들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특정 사회의 정치적 구조와 원리로부터 분리된 체 종교적 혹은 자연적 전제에 기대어 도출된 것이 아니며,[27] 순수하게 정치적인 의미의 독립된(freestanding) 형태로 제시된 것이다.

5. 나가며: 정치적 구성주의와 정당화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화(justification)는 왜 필요한가? 모든 정치권력은 필연적으로 강제력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자들의 질문은 이러한 강제력이 작동하는 사회 속에서 일생을 보내는 시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회'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개념들은 민주적 공적 정치문화 속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될 정도로 익숙하고 알기 쉬운 것들이라는 롤즈의 설명에 가장 정확하게 부합되는 근본 개념들이라고 여겨진다.

27) 이 말을 역사적인 의미에서 실제로 그러하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재하는 많은 민주 정치 체제들의 자기 이해에 대한 전통은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해석에 어느 정도 관련되어 발전해왔다. 롤즈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역사적 경험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정치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당기간 유지시킬 수 있는(PL xxxvii)" 정치적 정의관을 구성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롤즈의 견해를 최대한 단순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만약 정치적 강제력이 행사되는 방식을 지도해 줄 원칙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정당화된다면 우리는 이 힘에 복종하면서도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우리는 공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칙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만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자유로울 수 있다.

롤즈에게 정당화란 단순히 하나 혹은 여러 전제들로부터 도출 가능한 타당한 논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형이상학적이 아니고 정치적인(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 JFPM)"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정당화란 우리와 다른 의견을 지닌 이들을 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어느 정도의 합의(consensus)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즉, 우리와 다른 이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전제들에서 출발해야 한다. … 정치적 정의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효과적인 동의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목적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수용가능하다고 공적으로 인정되는 전제들에서 시작해야만 한다(JFPM 394).

이와 같은 정당화 방식이 지닌 장점은 정치권력의 행사가 모든 시민들로부터 승인되리라고 합당하게 예상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있다. 롤즈에 따르면, 이는 '올바른 이유에 따른 안정성(the stability for the right reasons)'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치적 구성주의를 통해 우리는 현대 민주사회의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이라는 조건하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도달하게 된다. 현대 자유주의의 난관은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의 근본적인 대립에서 발생한다.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도덕적·종교적 포괄적 교리에 담겨 있는 진리는,

그 정의상,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어느 교리든 자신의 정치체제 내에서 더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 교리의 신봉자들은 자신들의 견해가 진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고자 한다. 그들은 정치권력의 행사를 통한 강제가 단순히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혹은 사회 전체에 이롭다고 여길 것이다. 그들의 그러한 결정은 완전히 합리적이다. 만약 더 많은 지지자를 정치적 영향력 내지 권력으로 전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다수가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러한 선택은 비합리적으로 간주될 것이다. 하지만, 민주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합당한 포괄적 교리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심오하고 광범위한 종교적·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안정되고 지속될 수 있는 합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롤즈에 따르면, 이것은 "인간 삶의 영구적 조건(a permanent condition of human life[KC 329])"이다. 그렇다면, 질서정연한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우리가 적절한 정의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아닌 부분적 진리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28] 이때의 부분적 진리는 우리가 현재 공유하고 있는 기초적인 믿음들을 뜻한다(Ibid.). 정치적 구성주의에 의한 정당화는 바로 이러한 공유된 믿음에서 출발한다.

---

28) 이 지점에서 칸트적 구성주의의 한계가 뚜렷해진다. 즉,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자신의 도덕적 본성을 표현하고자하는 칸트적 인격(personality)은 자유주의적 정당성의 원천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여러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 중에 하나라는 지위에 머무르게 된다. 따라서 정치권력의 집행과 한계를 결정지을 원칙들에 대한 합의는 별도의 독립적인 정치적 정의관(the 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PL 97-98)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부분은 자유주의적 정당성의 문제가 칸트적 구성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과 연관된다는 심사위원의 적절한 지적에 의해 추가되었다.

참고문헌

김비환,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비판: 민주적 형이상학과 사회의 기본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30권 2호, 1996, pp. 5-23.

인지훈, 『롤즈 정치철학의 재조명: "만민법"의 정치적 구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정원규, 「롤즈 정의론의 형이상학적 문제들」, 황경식·박정순 외, 『롤즈의 정의론과 그 이후』,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9, pp. 187-199.

Ackerman, B. "Political Liberalism", In J. Dryzek, B. Honig and A. Phillips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p. 364-86.

Barry, B. "John Rawls and the Search for Stability", *Ethics* 105-4, 1995, pp. 874-915.

Beitz, C. R. *Pol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Buchanan, "Rawls's Law of Peoples: Rules for a Vanished Westphalian World", *Ethics* 110-4, 2000, pp. 697-721.

Buckley, M. "Political Constructivism", In *The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ISSN 2161-0002, https://www.iep.utm.edu/, viewed 18 May 2021.

Burr, V. *Social Constructionism*, New York: Routledge, 2015.

Caney, S. *Justice Beyond Bord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Freeman, S. *Rawls*, London: Routledge, 2007.

Gergen, M. and Kenneth J. Gergen (Eds.), *Social Construction: A Reader*, London: Sage, 2003.

Hill Jr., T. E. *Human Welfare and Moral Wor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ames, A. "Constructivism about Practical Reasons",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74-2, 2007, pp. 302-25.

Kaufman, A. "Rawls and Kantian Constructivism", *Kantian Review*, 17-2, pp. 227-256.

Korsgaard, C. M. *The Sources of Normativ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Krasnoff, L. “How Kantian Is Constructivism?” *Kant-Studien* 90-4, 1999, pp. 385-409.
Nussbaum, M. “Introduction”, In M. Nussbaum and T. Brooks (Eds.), *Rawls's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pp. 1-56.
O'Neill, O. “The Presidential Address: Constructivisms in Ethics.” In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89-1, pp. 1-17. 1988.
O'Neill, O. “Constructivism in Ethics.” In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1998. https://www.rep.routledge.com/articles/thematic/constructivism-in-ethics/v-1, viewed 22 May 2021.
O'Neill, O. “Constructivism in Rawls and Kant”, In S. Freema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Raw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347-367.
O'Neill, O. “Changing Constructions”, In T. Brooks and M. Nussbaum (Eds.), *Rawls's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pp. 57-72.
Okin, S. M. “Political Liberalism. By John Rawl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4, 1993. pp. 1010-1011.
Pogge, T. *Realizing Rawl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Pogge, T. “Rawls on International Justice”, *The Philosophical Quarterly* 51-203, 2001, pp. 246-253.
Rawls, J.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황경식 역.『정의론』, 이학사, 2003.
Rawls, J. *The Law of Peopl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장동진, 김기호, 김만권 역.『만민법』, 동명사, 2017.
Rawls, J. “Outline of a Decision Procedure for Ethics(1951)”, In S. Freeman (Ed.), *Collected Paper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p. 1-19.
Rawls, J. “The Independence of Moral Theory(1975)”, In *Collected Papers*, pp. 303-358.
Rawls, J.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1980)”, In *Collected Papers*, pp. 303-358.
Rawls, J.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1985)”, In *Collected*

Papers, pp. 388–414.
Rawls, J.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Cambrdi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김주휘 역,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 이학사, 2016.
Rawls, J.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장동진 역,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2016.
Roberts, P. *Political Constructivism*, New York: Routledge, 2007.
Scanlon, T. *What We Owe to Each Oth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Tan, K. "Liberal Toleration in Ralws's Law of Peoples", *Ethics* 108–2, 1998, pp. 276–95.
Tan, K. *Justice without Bord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Weithman, P. *Why Political Liberalism? On John Rawls's Political Tur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Wenar, L. "Political Liberalism: An Internal Critique", *Ethics* 106–1, 1995, pp. 32–62.

(**투고일**: 2021. 5. 23 **심사완료일**: 2021. 6. 20 **게재확정일**: 2021. 6. 23)

인지훈
소 속: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전자우편: jihoonlin@gmail.com

[Abstract]

Continuity in Rawls's Conception of Justice : From Kantian Construction to Political Construction

Lin, Ji-hoon

The purpose in this essay is to clarify that Rawls's political philosophy has consistently developed with the constructive method as a key link. Until now, many critics have focused on various ideas, or contents, found in Rawls's theory of justice, while their interest in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is relatively low. This led to a misunderstanding that tension and contradiction exist between A Theory of Justice and Rawls's later writings. However, when we attention to the purpose of political justification, Rawls' views of justice are able to be integrated into a coherent system, even though his emphasis has gradually shifted from Kantian constructivism to political one. Rawls's political constructivism has a great theoretical and practical meaning in that it presents us with a powerful way to justify political power in a modern pluralistic society.

Key words: Rawls, theory of justice, political liberalism, Kantian constructivism, political constructivism, justification